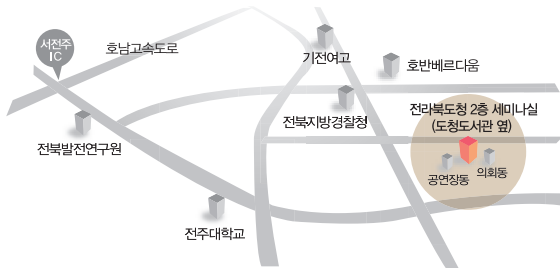


맛과 멋, 소리의 고장 전라북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극도로 재미와 유쾌까지

전라북도 브랜드공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개 세미나

전라북도 브랜드공연의 콘셉트, 스토리, 공연장소 구상

2012. 2. 27(월) 오후 2시
전라북도청 2층 세미나실(도청도서관 옆)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浦路 1696(효지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



전라북도 브랜드공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개 세미나

전라북도 브랜드공연의 컨셉트, 스토리, 공연장소 구상

전라북도 브랜드공연 제작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발전하면서 독특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공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장예모 감독의 인상시리즈를 벤치마킹한 지역 브랜드공연이 여러 지역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산수뮤지컬을 지향한 공연들이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감안한 작품을 구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공연관광 상품으로서 지역 브랜드공연을 제작하려 합니다. 전라북도를 찾는 이들이 언제라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세미나는 전라북도 브랜드공연의 컨셉트와 스토리, 상설공연장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되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 브랜드공연의 성공적인 제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진은 관광시장과 브랜드공연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내·외 공연사례 및 공연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전라북도에 적합한 공연컨셉트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스토리를 파악, 브랜드공연에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분석했습니다. 공연장은 14개 시·군 관광지의 관광객 현황, 전문가 조사, 수요추정을 통한 타당성 분석으로 최적의 장소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전라북도 브랜드공연이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질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셔서 전라북도 브랜드공연 마스터플랜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27 (월) 오후 2시
전라북도청 2층 세미나실(도청도서관 옆)

PROGRAM

좌장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실 연구위원)
총괄보고	전라북도 브랜드공연의 추진배경 및 방향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팀 부연구위원)
발제	브랜드공연의 트렌드 및 전라북도 브랜드공연의 컨셉트(안) 권병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라북도 브랜드공연의 공연장소(안) 곽병창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전라북도 브랜드공연 스토리 발굴(안) 김정수 (전주대학교 공연엔터테인먼트과 교수)
토론	구민호 (정동극장 경주문화사업부 차장) 김기현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지원센터장) 류경호 (전라북도연극협회장, 전주시립극단 상임연출)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 이창기 (강동아트센터 관장) 최동규 (전라북도관광협회 부회장)